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민 교통소음 '고통'

'전국 대표 명품도시로 조성됐다'는 나주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아파트 입주민 수천명이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등 고통받고 있다.

24일 나주시와 나주 우미 린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나주 금천IC에서 혁신도시 입구에 석전교차로를 지나는 국도 1호선에 인접한 우미 린 아파트는 16개동 1784세대인 대단위 주택단지다. 20층까지 있는 이곳에 설치된 방음벽 높이는 8m 50cm에 불과하다. 도로 및 통로박스가 있는 101동과 114동 지점은 방음벽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차량통행이 뜸한 야간 또는 새벽 시간대엔 과속으로 질주하는 일부 차량의 굉음 때문에 잠에서 깬 정도라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하루 평균 이곳을 지나는 교통량은 2014년 기준 2만3429대에 이른다. 최근 국도 1호선 다시~왕곡~금천 19.5km 구간이 전면 개통되면서 영암, 해남, 장흥, 목포 방향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데다 혁신도시 입주민도 1만 3000명을 넘어서 교통량은 훨씬 늘어난 상태다.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우미 린 아파트 주민들은 시행사측에 교통소음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함께 소음도 측정과 방음터널 설치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혁신도시 시행사는 시공 후 분기마다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미 린 아파트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미 린 입주민들은 "혁신도시 내에서

우미 린 아파트 방음벽 낮고 일부구간은 없어 대책 호소

민원 손놓던 시행사 환경청 지시에 뒤늦게 소음 측정도



나주혁신도시 내 우미 린 아파트와 국도 1호선 사이에 설치된 방음벽의 높이가 낮고, 도로 밑으로 통로 박스가 설치된 지점은 방음벽조차 없어 입주민들이 교통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손영철기자 @kwangju.co.kr

소음도 측정은 국도 1호선이 지나 이 곳 이 필수적인데 시행사에서 사실상 방치해 왔다"며 "주민 민원을 묵살하다가 지난해 환경청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후에야 소음측정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특히 "시행사측에서 방음터널 설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대로

하자며 으름장만 놓고 있다"고 말했다.

국도 1호선 도로 옆 우미 린 아파트 7층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그나마 방음벽이 있는 동에서 살고 있지만 자동차 소리(교통소음)가 너무 커 여름에 창문을 열고 살 수가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주민의 주장처럼 나주혁신도시시행사는 지난해 9월 환경청으로부터 '시공 후 환

영향평가 측정지역을 바꾸고 변경해서 조사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에야 소음도 측정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가 환경청 지시에 따라 실시한 우미 린 아파트에 소음도는 주거지역소음 기준치 65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나주시와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미 린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각각 70DB과 69DB 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측은 "우리(시행사)만의 잘못은 아니며, 나주시가 인허가 시 방음대책을 세우고 시공사에서 설치토록 했어야 한다"며 "경찰청도 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차량에 속도를 제어해 소음을 줄이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행사는 소음저감대책으로 통로 박스가 있는 두 곳에 방음벽 설치와 도로 양방향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용역의뢰를 계약부서에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환경청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 우미 린 아파트 소음도 측정에서 기준치보다 약간 높은 수치가 나왔다"며 "통로박스가 있는 곳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도가 낮아져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행사는 다만 주민 요구사항인 방음터널 설치에 대해서는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시립합창단이 최근 합창단 연습실에서 시민 초청 'Dinch Concert'를 열었다.

나주시, 마을합창단 운영 '시동'

상반기 5개 지역 공모 선정

시범운영위 20곳으로 확대

나주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 마을합창단을 운영한다.

나주시는 24일 "관내 20개 읍면동에 마을별로 합창단 창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합창단사업은 시민이 생활 예술을 통해 소통과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 행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문화시책이다.

시는 올 상반기에 5개 지역을 공모해 시범 운영한 후 20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구성된 나주 소재의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이면 된다.

선정된 합창단은 주 1회 이상 진행되

는 연습비와 지휘자·반주자 활동 수당 등 1개 합창단별로 연간 6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접수는 3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서류심사를 통해 5개 마을합창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마을합창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일 나주시립합창단 주관으로 시민을 합창단 연습실로 초청, 'Dinch Concert'를 열고 함께 노래하는 합창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마을합창단 사업으로 소통, 화합, 배려의 하모니를 창출해 시민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문화가 있는 시민의 삶으로 행복지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현철기자 chung@

"클린 나주 만들어요" 여성자원봉사회 가두캠페인

나주지역 여성들이 '깨끗한 나주 만들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나주시여성자원봉사회는 지난 19일 나주문화센터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가진데 이어 '아름다운 클린나주 프로젝트' 및 '자원봉사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자원봉사자 40명이 참가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오는 5월 5일부터 29일까지 나주에서 개최되는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손님맞이에 깨끗한 도시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홍보하기 위해 나주역 인근에서 시범 실시했다.

김진숙 나주시여성자원봉사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나주시민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주변 환경을 스스로 관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행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제공하고, 많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나주시여성자원봉사회 회원들이 최근 정기총회를 갖고 아름다운 클린나주 프로젝트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 이재승 사회복지과장은 "모든 시민이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가치를 얻

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배려하고 소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친환경디자인박람회 대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추진

나주시는 오는 5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개최되는 2016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를 앞두고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음식점 중 자기부담금 5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업소면이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접수는 나주시 보건위생과에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같은 달 25일 대상자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보건위생과(061-339-2151)에 문의하거나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안전농산물 생산 위해 '토양검정' 하세요

나주시, 영농철 앞두고 서비스 시작

나주시가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토양검정 서비스를 시작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토양 시료채취 방법은 동일 경작지 1000㎡(300평) 5개 지점에서 채취하며, 표토를 1cm정도 삽으로 걷어

깊이 토양을, 과수원 토양은 수목의 끝가지로부터 안쪽에서 20~30cm까지의 토양을 채취하면 된다.

채취한 토양 500g을 골고루 섞은 뒤 재배할 작물과 과수의 경우 년생, 토양의 지반·지적(㎡),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 의뢰하면 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연구원들이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토양검사를 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2주 뒤 직접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토양검정 의뢰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2층사 배기술지원과(061-339-7493, 7489)로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나주=정현철기자 chung@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스포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